

2018년도 북중무역과 제재효과

정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향후 북한의 향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북미회담과 비핵화협상에 나오게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더욱 더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대 시각도 있다. 북한의 경제활동과 건설 등 외형적인 성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다 또는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주장은 통계나 수치로 북한경제를 보지 말고 북한 내의 실상을 근거로 평가하자는 얘기다. 양자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나 실제 김정은 위원장도 제2차 북미회담에서 2016년 이후의 유엔안보리의 5건의 대북제재안 해제를 의제로 내 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간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가 가시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2018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24.6억달러로 2017년 49.8억달러에 비해 약 50% 감소했고, 강력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58억달러에 비해서는 약 60% 가까이 감소했다. 당연히 이렇게 급격한 무역액의 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대중수출액 감소는 더욱 더 심각하다. 2018년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2017년 16.5억달러에서 약 87% 감소한 2.2억달러로 급감하였고 본격적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에 비해 92%가 감소했다. 수입 역시 2017년 33.3억달러에서 약 33% 감소한 22.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2018년은 대북경제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해였다.

중국 해관통계를 통해서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제재 품목의 대중수출이 거의 봉쇄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무연탄(HS코드 270111)은 UNSCR 2321호(2016. 11. 30)와 중국 상무부 고시 12호(2017. 2. 17)에 의해 2017년 3월부터 북한으로 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이 품목의 경우 2017년에는 전년대비 66% 감소한 4억달러를 수출했고, 2018년도에는 대중 수출량 제로(0)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의류 품목(HS코드 61, 62)는 UNSCR 2375호(2017. 9. 11)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2017. 9. 23)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2017년도에는 동 품목에 대한 제재로 인해 10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총 5.6억달러만을 수출했다. 2017년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대중 수출액의 감소로 의류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중 3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8년도 동 품목들의 대중 수출은 HS61 품목군이 9,771달러, HS62 품목군이 9,201달러로 급감하여 실제 수출이 거의 봉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광석(HS 코드 72, 2601)은 UNSCR 2371호 (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거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 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2016년에 0.73억달러로 북한의 수출비중에 있어서 그 비중(2016년 기준)이 타 광물자원에 비해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43%증가하여 총 1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제재로 인해 HS 코드 72 품목군(철강)이 3,189만달러만이 수출되었다.

수산물(HS 코드 03)은 UNSCR 2371호 (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해 북한으로 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2016년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약 1.9억 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 정도였다. 2017년 북한 수산물의 대중 수출은 제재 영향으로 1.6억달러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북한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차지했다. 2018년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통계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는 대북제재 영향으로 2017년 9월 이후 수출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2017년 12월22일)이 2018년도에 들어 강력히 추진되면서 2018년도의 북한의 대중수입은 전년도 33.3억달러에서 약 33% 감소한 22.4억달러로 하락하였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제1품목군은 HS 코드 85에 해당되는 전기기기와 그 부품들로 2017년의 경우 총 수입액은 3.4억 달러이었다. 그러나 이 품목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에 의해 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도에는 그 규모가 현격히 감소하여 128,232달러

를 기록하여 99.9% 감소하였다.

2017년 두 번째 수입 품목군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으로 총 수입액은 2.7억달러이었다. 그러나 이 품목 역시 제재로 인해 2018년에는 98,693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99.9% 감소했다. 그나마 적은 규모의 수입 역시 중계무역을 위해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세 번째 수입품목은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군으로 전년대비 비교적 많이 증가한 13.1%였다. 동 제품군이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이다. 이 품목은 2018년에 4,781,186달러 수입하여 전년 대비 97.9%감소하였다.

네 번째 수입품목은 인조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HS54) 전체 수입에서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2017년에는 2.2억불을 수입했다. 동 품목은 2018년도에는 3,608,443달러로 전년대비 98.4%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다섯 번째 수입품목은 전체 대중수입에서 6%를 차지하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87)이다. 2017년 이 품목군의 수입액은 2억달러 조금 넘었으나 2018년도에는 52,967달러로 급감하였다. 거의 100%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은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수입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동반된 품목군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증가폭이 높은 수입품목으로는 냉동명태(HS 030367)로 2017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동 품목 역시 3,545,920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HS 코드 03군에 해당하는 수산물 수입이 37%나 증가했으나 2018년의 경우는 전년대비 -93.6%가 감소한 6,528,132달러를 기록했다.

인테리어용 내외장재(HS 69) 역시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41%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동 품목군은 2018년도에 99.7%나 감소한 194,252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아울러 가구와 건축용 목재(HS 94)도 2017년에는 전년대비 24%나 상승했으나 2018년도에는 98%나 감소하여 1,213,80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국내경기부양을 위한 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독려에 따른 동 분야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동 품목군들이 직접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간접효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그 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외환부족으로 동 분야의 수요 또한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7년의 경우 섬유류(HS 54, 55, 56, 60)와 의류(HS60)은 전체적으로 각 품목마다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수요에 따른 원자재의 대한 수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일부의 경우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었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제재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품목군들이 90%이상 감소했다. 그동안 섬유류를 북한으로 반입하여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위탁가공형 협력이 제재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섬유류외에 대중의류에 해당하는 HS 61 품목군은 2017년에도 전년대비 약 13% 감소했으나 2018년도에는 거의 10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물유류(HS 코드 27: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의 경우 2017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전년대비 50.9% 감소하였고, 2018년도에도 역시 전년대비 72.6% 감소하였다.

철강류(HS 72)와 운송수단(HS 87)의 수입도 2017년에 각각 26%와 21% 감소했는데 2018년도에도 각각 100%, 98% 감소했다. 과일과 견과류(HS 08)의 수입은 전년대비 19.4% 증가했다. 그밖에 고무류(-87.5%)의 수입도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의 해관통계에 나타난 중국 정부의 대북 원조규모가 흥미롭다. 중국 당국의 대북원조는 2010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 해라 할 수 있는 2012년에 1억 2,000만달러가 지원되었다. 이를 정점으로 그 액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2년 중국의 대북원조는 그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의 3.7%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는 0.1%에도 못 미쳐 그 사이 악화된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시작한 2017년에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중단했다. 그러나 2018년도 북중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대북 원조 또한 증가하여 2018년 중국은 북한에 56,048,354달러를 국제원조 명분으로 지원하였다.

이같은 중국의 해관통계에 기초해서 2018년의 북중교역과 최근 10년 동안의 북중교역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해였다. 특히 2017년에 금지한 대북수출 품목의 경우 중국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해관통계상에는 적어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제재와 상관이 없는 품목군에 있어서도 그 교역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제재효과가 제재이외의 품목으로도 파급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급격한 교역 감소는 북한의 산업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특히 대중수출이 전년 대비 87%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역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의 무역적자가 2017년 16억달러로 급증한 상황에서 2018년에는 20억달러로 더 늘어나고 있어 북한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2019년도의 북한경제는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은 북중 또는 북러 협력으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상쇄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핵협상과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고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2019년에는 북한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